

# 제54기 공군사관생도 1차 선발시험 문제지

## 제 1 교시

## 언 어 영 역

공 통

성명

수험번호

A 형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번호, 문형, 지원분야를 표기하십시오.
- 문제는 총 40문항입니다. 문제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조하십시오.  
2.2점과 2.8점인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2.5점씩입니다.

### 1. 맞춤법에 맞는 것은? [2.8점]

요즘 ㉠웬일인지 그녀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는 나와 헤어지기를 원하고 ㉡있을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다. 지난 일을 ㉢골골히 생각하니 정말로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그녀에 대한 나의 감정은 더욱 더 복잡하게 ㉣뒹다. ㉤하얏든 내일은 그녀를 꼭 만나야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글쓰기에 있어서 주제 설정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석 : 무엇보다 주제의 범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해 주제의 범위는 되도록 포괄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 ② 영희 : 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가 이해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③ 인수 : 주제는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는 제재의 선택과 배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장의 통일성과 긴밀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④ 기상 : 글감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주제라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낼 글감을 구할 수가 없다면 그 주제는 생명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⑤ 우영 : 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쓰는 이의 능력과 관심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발한 주제라 하더라도 필자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필자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의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3. 표준 발음법에 맞는 것은?

- ① 갑자기 다리가 끊기면서[끈기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 ② 그 사나이는 나의 발을 밟고서도[밟꼬서도] 모른 채하였다.
- ③ 나에게게도 머리술이[머리수시] 많았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
- ④ 아이들은 무엇을 찾는지 부엌을[부어글] 자주 드나들었다.
- ⑤ 날이 밝지[발찌] 않았는데도 그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률가라는 직업인을 일반적으로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또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법률가가 되려면 약간 고지식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때 ‘고지식’이라는 어휘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향을 의미하는지 다른 말로 풀이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 말이 인간적인 편협함을 의미한다면 법 실무는 창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극히 기계적인 행위라는 전제 아래, 이러한 기계적인 업무를 업으로 삼는 사람은 사고의 틀과 행동 양식이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고 내린 결론일 것이다. 이렇게 성급한 결론은 사실인즉, 우리 나라 법률가 대다수를 상대로 검증해 보면 그다지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률가들이 일반적으로 편협하다고 해서, 법 실무가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이상적인 법률가는 사고의 폭이 협소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법과 법률가의 보다 본질적인 역할은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공동체의 가치관을 제시하는 데 있다. ㉠법의 기능은 건전한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을 규제하는 것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전자를 통제 기능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의 기능이 통제의 수단에서 복리 증진의 수단으로 그 중점이 이동해 온 과정을 우리는 역사의 발전이라고 부른다.

‘고지식’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함의(含意)는 이처럼 인간적으로 편협하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집행에서 원칙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흔히 소신대로 원칙을 고집하면서 법률가의 일생을 살고 있는 인물을 일러 ‘대쪽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법률가에 대한 최고의 찬사인 듯하다.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도 법률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압력을 받고 산다. 판·검사가 누구에 대해서나 일관되게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란 힘든 일이다. 따지고 보면 법의 운영 그 자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축성이 있어야만 한다. ‘형평’이라는 것 자체가 곧바로 엄격한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형평이라는 법의 또 다른 이념을 표면에 내세우다 보면 결과적으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여 정의를 유린하기 십상이다. ㉡법의 여신이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를 알 법도 하다. 소집단 의식이 특히나 강한 우리 사회에서 판·검사는 엄청나게 많은 압력을 받는다.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종 ㉢끈을 불모로 한 온갖 형태의 청탁과 압력이 가해진다. 어느 판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학 나온 놈 하나 잡아넣자면’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한다. 사방에서 걸려오는 전화,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한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결코 친하다고 할 수 없는 중학교 동창생이 찾아오는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뭔가 청탁거리를 들고 나타난다. 그를 상대로 원칙론을 폈다가는 몹시도 섭섭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뒷모습에 괜히 언짢아진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차적인 기준도,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어떤 변호사가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재판부와 ‘잘 통하느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다소 고지식하지만 원칙을 고집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이지 크나큰 미덕이다.

4. 밑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와 입장을 바르게 파악한 것은?

- ① 법률가의 애환을 토로하여 법 실무의 기계적인 성격을 옹호하였다.
- ② 법률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법률가의 자세를 제시하였다.
- ③ 일반인들의 부당한 선입견을 반박하여 법률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호소하였다.
- ④ 청탁이 만연된 법조계의 현실을 비판하여 역사 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보여 주었다.
- ⑤ 법률가의 인간적인 편협함을 지적하여 사안에 따른 신축성 있는 대처를 권장하였다.

5. 밑글의 논지를 요약할 수 있는 비유적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 ② 나무가 없는 산은 메아리가 없다.
- ③ 사자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 ④ 휘어지지 않는 나무는 부러지기 쉽다.
- ⑤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6. ㉠을 ‘사관생도 모집 요강’에 적용할 때,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임관 후 5년이 지나면 사회 진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재학 중 성적 우수자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한다.
- ③ 졸업과 동시에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 ④ 생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퇴교를 명(命)할 수 있다.
- ⑤ 재학 중 교육, 피복, 숙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7. ㉡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 ① 법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② 사안에 따라 형평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 ③ 때로는 눈감아 줄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 ④ 통제된 생활 속에서 전문적인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
- ⑤ 원칙의 적용보다 인간적인 배려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8. ㉢의 기능과 가장 가까운 것은? [2.2점]

- ① 끈 없는 신발이 요즘 유행이다.
- ② 그의 말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
- ③ 한 땀씩 수를 놓으면서 내 마음도 실을 따라 정리되었다.
- ④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만났다.
- ⑤ 전자기기에서 선(線)을 없앤 것이 정보통신 혁명의 시작이다.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성은 텅 빈 채로 달 한 조각 떠 있고 / ㉠오래된 조천석\* 위에 천 년의 구름 흐르네.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데, /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노니는가?

돌다리에 기대어 휘파람 부노라 /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昨過永明寺 暫登浮碧樓 城空月一片 石老雲千秋 麟馬去不返 天孫何處遊 長嘯倚風磴 山青江自流

\*조천석 : 평양성 근처에 있는 큰 바위. \*기린마 : 고구려를 개국한 동명왕이 탔다는 말. \*천손 : 동명왕.

- 이색, <부벽루(浮碧樓)>

(나)

興亡(흥망)이 有數(유수)하니 滿月臺(만월대)\*도 秋草(추초)이 로다.

五百年(오백 년) 王業(왕업)이 ㉡牧笛(목적)\*에 부쳐시니

夕陽(석양)에 지나는 客(객)이 눈물계워 흐노라.

\*만월대 : 고려의 궁궐 터. \*목적 : 목동의 피리 소리.

- 원천석의 시조

(다)

一長劍(일장검) 비기 차고 兵船(병선)에 구테 올라, 勵氣瞋目(여기 진목)\*하야 對馬島(대마도)를 굽어보니 바람 조친 黃雲(황운)은 遠近(원근)에 쌓여 있고, ㉢아득한 滄波(창파)는 긴 하늘과 한 빛일세. 船上(선상)에 徘徊(배회)하며 古今(고금)을 思憶(사억)하고, 어리미친 懷抱(회포)에 軒轅氏(현원씨)\*를 애다노라. ㉣, 진실로 배 아니면 風波萬里(풍파 만리) 밖에, 어느 四夷(사이) 엿볼지고. 무슨 일 하려 하여 배 만들기를 비롯하고? 萬世千秋(만세 천추)에 가없는 큰 弊(폐) 되어, 普天之下(보천지하)에 ㉤萬民怨(만민원)을 조장한다. 어즈버 깨달으니 秦始皇(진시황)의 탓이로다. 배 비록 있다 하나 倭(왜)를 아니 삼기던들 日本(일본) 對馬島(대마도)로 빈 배 절로 나 올런가. 뉘 말을 미더 듯고 童男童女(동남동녀)를 그토록 들여다가 海中(해중) 모든 섬에 難當賊(난당적)을 끼쳐 두고 痛憤(통분)한 羞辱(수욕)이 華夏(화하)에 다 미친다. 長生(장생) 不死藥(불사약)을 얼마나 어더 내어 萬里長城(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 萬年(만년)을 살았단고? ㉥남대로 죽어 가니 有益(유익)한 줄 모르겠다. 어즈버 생각하니 서불 등이 已甚(이심)하다. 人臣(인신)이 되어서 亡命(망명)도 하는 것가. 神仙(신선)을 못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舟師(주사) 이 시름은 전혀 없게 삼길렀다.

<중 략>

이런 일 보건대, 배 삼긴 制度(제도)야 至妙(지묘)한 듯하다마는, 어찌하여 우리 무리들은 나는 듯한 板屋船(판옥선)을 晝夜(주야)의 빛기 타고 臨風咏月(임풍 영월)하되 興(흥)이 전혀 업는게요? ㉦昔日(석일) 舟中(주중)에는 杯盤(배반)이 狼藉(낭자)터니 今日(금일) 舟中(주중)에는 大劍長槍(대검 장창)뿐이로다. 한 가지 배건마는 가진 바가 다르니, 其間(기간) 憂樂(우락)이 서로 같지 못하다. 時時(시시)로 머리 들어 北辰(북신)\*을 바라보며, ㉧傷時(상시) 老淚(노루)를 天一方(천일방)에 디이나다.

\*勵氣瞋目(여기진목) : 기운을 돋우고 눈을 부릅뜬. \*軒轅氏(현원씨) : 배와 수레를 만든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제왕인 황제(黃帝). \*北辰(북신) : 북극성, 임금님이 계신 곳.

- 박인로, <선상탄(船上歎)>

9. (가)~(다)의 공통점을 바르게 지정한 것은?

- ①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다.
- ② 임과의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 ③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
- ④ 대상의 유래(由來)를 살피고 있다.
- ⑤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 있다.

10. (다)의 내용을 토대로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한다. 연출자가 구상한 메모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8점]

㉠ 공간적 배경 : 병선(兵船) 위 - 주위의 푸른 바다가 약간씩 보이게 카메라 앵글 조정

㉡ 분위기 : 시청자가 전운(戰雲)을 느끼도록 배 위에 칼과 창이 나열된 모습을 long take\* - 긴장감을 주는 배경 음악 준비

㉢ 인물 : 나이가 든 무인(武人)풍의 배우 캐스팅

㉣ 장면 1 : 주인공이 바다 건너 일본을 쳐다봄 - 적개심이 드러나도록 표정 연기 강조

㉤ 장면 2 : 주인공이 현원씨(軒轅氏)를 그리워하는 모습 - 이때 흘리는 눈물을 클로즈업

\* long take - 긴 시간 동안 찍음.

- ① ㉠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1. 발상 및 표현이 ㉠과 유사한 것은?

- ①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 처럼 /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 ② 관(棺)이 내렸다. /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 / 주여 / 용납하옵소서.
- ③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어선 지고 /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 ④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 거기까지 닿은 길이 / 몇 갈래의 길과 /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 ⑤ 어제도 하로밤 / 나그네 집에 / 가마귀 가왓가왓 울며 새었소. // 오늘은 또 몇 십 리 / 어디로 갈까.

12. ㉠~㉣ 중, ㉡과 가장 유사한 정서를 환기시키는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3. (다)의 ㉡에 들어갈 알맞은 구절은?

- ① 늘고 病(병)든 몸을 舟師(주사)로 보내실새
- ② 晝夜(주야)의 흘녀 내여 滄海(창해)에 니어시니
- ③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몸이 날만한 이 하건마는
- ④ 大洋(대양)이 茫茫(망망)하여 天地(천지)에 둘러시니
- ⑤ 天上(천상) 白玉京(백옥경)을 엇디하야 離別(이별)하고

[14~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과학은 생산력과 직결되는 ㉠도구적 이성으로서의 특성과 그 생산력의 사회적 의미까지도 천착(穿鑿)할 수 있는 ㉡비판적 이성의 성격을 갖는다. 유전자 구조와 그 속에 담겨 있는 정보를 밝혀내는 것도 과학의 몫이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과학의 소임이다. 도구적 이성으로서의 힘이 커지는 만큼 비판적 이성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오늘날의 과학은 인류의 말살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태계를 교란·파괴할 힘을 갖게 되었고, 가까운 미래에 프랑켄슈타인과 복제 인간의 제조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과학의 힘을 제어할 비판적 이성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성은 필시 윤리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윤리성은 ‘윤리적 인간’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좁은 전문 영역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과학자는 일상적 삶과 전문 과학자로서의 삶에 아무리 충실하다 할지라도, 윤리적 이성을 가진 과학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과학자가 어떻게 자신이 하는 일의 사회적 의미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가? ㉢핵분열에 관한 자신의 순수한 연구가 원자 폭탄 제조로 연결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과학자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숙제일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사회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문제는 그 자체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기도 하다.

과학 기술의 사회적 관리에 관해 두 가지 길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여태까지 주로 해왔던 엘리트적 방법으로 소수 관계자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며,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귀결은 철저한 관리 사회와 독재 사회일 수밖에 없다. 다른 한 가지는 과학 기술 정보의 공개와 사회적 토론 및 검증을 통한 관리이다. 공개를 통해 과학 기술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 의미를 그때그때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류의 지적 자원인 정보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전략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간은 물론 선진 과학 기술의 국가 간 이전과 공유(共有)의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과학 기술의 공개 및 공유와 더불어 행해져야 할 것은 과학 교육의 쇄신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도구적 이성으로서의 과학을 가르쳐 왔다. 그러나 이제는 비판적 이성으로서의 과학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거기에서는 과학과 사회와의 관련 영역이 한 가지 중심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격의 과학 교육은 전문 과학 기술인에 대해서 특히 철저히 시행되어야 하고, 국민 일반의 교육 과정에서도 시행되어야 한다.

과학 문명이 통제력을 잃고 비대해지기만 해서 마침내 인류와 생태계, 그리고 과학 자체를 파탄시킬 미래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류는 그리고 현장의 과학 기술인들은 새로운 윤리적 이성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답안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답안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14. 글쓴이의 의도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과학자의 모습은?

- ① 순수 학문을 연구하여 응용 학문에 다양한 토대를 마련해 준다.
- ②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의 방법으로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실용 과학을 연구하여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산물을 만들어 낸다.
- ④ 연구 성과를 공개하여 사회의 비판을 수용한 후 이를 연구에 반영한다.
- ⑤ 생명 공학과 같은 최첨단 분야를 연구하여 과학 기술계를 이끌어 나간다.

15. 밑글의 핵심 내용을 표어로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점]

- ① 과학 기술 이제 그만                  자연으로 돌아가자!
- ② 과학 교육 쇄신하여                  과학 영재 양성하자!
- ③ 막강 권력 과학 기술                  통제하면 발전 없다!
- ④ 과학 기술 발전시켜                  개인 성공 국가 만족!
- ⑤ 너와 나의 윤리 의식                  인류 위한 과학 기술!

16. ㉠, ㉡의 특징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은 사람들 모두에게, ㉡은 과학자에게 요구된다.
- ② ㉠은 지식의 측면이, ㉡은 윤리의 측면이 강조된다.
- ③ ㉠은 실천이 요구되지만, ㉡은 아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
- ④ ㉠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 ⑤ ㉠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17. ㉢을 통해 강조하는 바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 ① 개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어서는 안 된다.
- ② 개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 ③ 개인의 연구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 ④ 분명한 결과가 예측되지 않는 개인의 연구는 금지되어야 한다.
- ⑤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18. ㉣에 대해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들 간에 과학 기술 결과를 공유하게 되면, 모든 나라들이 잘 살게 되지 않겠는가?
- ② 개인의 과학 기술 업적을 공개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힘들게 기술을 연구하려고 노력하겠는가?
- ③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 ④ 선진 과학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이 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강요할 수 있겠는가?
- ⑤ 지적 재산권이 분명히 인정되고 있는데, 개인의 연구 산물을 공유하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19~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나)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 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저 가 버리면  
억만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핏귀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毒)을 차고>

(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救)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砂漠)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永劫)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神)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砂)의 끝.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對面)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砂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유치환, <생명(生命)의 서(書)>

19.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여 율격이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 ③ 강한 어조로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의 외양을 통해 자신의 강한 의지를 암시하고 있다.
- ⑤ 불의의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드러나 있다.

20. (가)와 (나)의 시적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작품에 드러난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가) :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 ② (나) : 하지만 언젠가는 죽고 말면 그뿐이라는 인생의 허무함이 때로는 의지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는군요.
- ③ (가) :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비록 외롭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불의에 굽히지 않는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 ④ (나) : 온갖 위협이 도처에 깔린 상황에서, 그래도 나 자신을 이겨내는 것은 죽는 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지요.
- ⑤ (가) : 그러나 너무 강하게 고집을 부리면 부러진다고 합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습니다.

21. ㉠~㉣의 함축적 의미를 추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차마’, ‘못해라’의 표현으로 보아, 시적 화자의 의지를 굽히려는 외부적인 세력이나 압력으로 볼 수 있다.
- ② ㉡ : ‘새로 뽑은 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그만큼 내면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철저함을 알 수 있다.
- ③ ㉢ : 앞뒤에서 내 마음을 노리는 존재이므로, 현실 속에서의 부정적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④ ㉤ : ‘생명이 부대길 때’ 찾는 곳으로, 이국적인 정서를 풍기는 현실 도피의 장소이다.
- ⑤ ㉥ : 참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고 말겠다는 비장함을 엿볼 수 있다.

## 22. (가)의 시적 화자와 가장 유사한 유형의 인물은? [2.2점]

- ① 경성 학교 영어 교사인 이형식은 고아 출신으로 일본 유학을 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조선인에게 과학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직접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난다.  
(이광수, <무정>)
- ② 철학과 대학생 이명준은 남한, 북한 사회를 모두 체험하고는 어느 곳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전쟁 포로가 된 상황에서 그는 중립국을 선택한다. 하지만 인도로 가는 배 위에서 그는 바다에 투신하여 자살하고 만다.  
(최인훈, <광장>)
- ③ 이인국 박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에 맞게 끊임없이 변신을 거듭하면서 생존을 도모해 나간다. 그리고 그는 이런 자신의 가치관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는 몇 번의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항상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한다.  
(전광용, <꺼삐딴 리>)
- ④ 김 첨지는 가난한 인력거꾼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는 아내가 아파서 앓고 있는 데도 병에게 약을 주면 재미를 붙여 자주 찾아온다고 약 한 첩 쓰지 않는다. 어느 날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그의 아내는 죽어 있었다.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⑤ 조마이 섬에 살고 있는 갈발새 영감은 불의를 참지 못한다. 홍수가 나서 독을 허물지 않아 섬 전체가 위협하게 되자 앞장서서 독을 파헤친다. 이때 엉터리 독을 쌓아 섬을 통째로 차지하려던 유력자의 하수인들이 방해하자 이에 대항하다 경찰서에 끌려간다.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23. (나)의 화자가 벗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 여름 산(山) 같은 /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 ② 아아, 나의 이름은 나의 노래. / 목숨보다 귀하고 높은 것. // 마침내 비굴한 목숨은 / 눈을 에이고, 땅바닥 옥옌 / 무쇠 연자를 돌릴지라도 / 나의 노래는 / 비도(非道)를 치레하기에 앓기지는 않으리.
- ③ 자네는 나에게 휴식을 권하고 생(生)의 외경(畏敬)을 가르치네. / 그러나 자네가 내 귀에 속삭이는 것은 마냥 허무 /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자네의 / 그 나직하고 무거운 음성을 듣는 것이 더없이 흐뭇하네.
- ④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봄 한철 / 격정을 인내한 /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 분분한 낙화……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 지금은 가야 할 때.
- 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 그에게로 가서 나도 / 그의 꽃이 되고 싶다. // 우리들은 모두 / 무엇이 되고 싶다. /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고도 은이 십만 냥이 남았다.

“이건 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허생이 가서 변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변씨는 놀라 말했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 냥을 실패 보지 않았소?”

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시오. ㉠만 냥이 어찌 도(道)를 살찌게 하겠소?”

하고, 십만 냥을 변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 아침의 주름을 건디지 못하고 글읽기를 중도에 폐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 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변씨는 대경해서 일어나 절하여 사양하고, 십분의 일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 버렸다.

# <중 략>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오.”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臥龍先生)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 초려(三顧草廬)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제이(第二)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했다.

“나는 원래 ‘제이’라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明)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 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宗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勳戚) 권귀(權貴)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천하에 대의(大義)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唐)나라, 원(元)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 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江南)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大國)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伯舅之國)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禮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왔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24. 허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점]

- ① 세상일에 관심이 없는 은둔자
- ②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는 주변인
- ③ 사회 개혁안을 제시하는 개혁가
- ④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식인
- ⑤ 합리적인 이윤 추구에 능한 상업 자본가

25. ㉠~㉣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만 냥’이 ‘물질적 부’라면 ‘도(道)’는 ‘윤리적 가치’를 가리킨다.
- ② ㉡ : 허생의 지향점이 이윤 추구에 있지 않음을 부각시킨다.
- ③ ㉢ : 인재가 초야에 묻혀 지내는 것을 개탄하고,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④ ㉣ : 명나라의 옛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이 대장의 의견에 허생도 동의한다.
- ⑤ ㉤ : 극적인 효과를 높이고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질문이 반복된다.

26. ㉠의 주장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고 할 때, 찬성하는 쪽의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라 말기 육두품 지식인들은 지방 호족과 결탁하여 중앙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 ② 고려 후기에 지배 계층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몽고의 풍속 중 몇 가지는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굳어졌다.
- ③ 구한말 집권층은 다른 분야는 손대지 않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임으로써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④ 일제 강점기에 민족주의자들은 국내외에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에 대비하였다.
- ⑤ 한문, 산스크리트, 아랍어, 라틴어 등 공동 문어로 묶인 문명권 중에서 가장 열등했던 라틴어 문명권이 근대 이후에는 선두에 서게 되었다.

27.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엇을 예법이라 하는가?
- ② 사대부가 무엇이란 말인가?
- ③ 네가 신임받는 신하란 말인가?
- ④ 아무 것도 행할 수 없단 말인가?
- ⑤ 우리라고 대국(大國)이 되지 못하겠는가?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半萬年(반만년) 歷史(역사)의 權威(권위)를 仗(장)하여 此(차)를 宣言(선언)함이며,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의 誠忠(성충)을 合(합)하여 ㉠此(차)를 佈明(포명)함이며, 民族(민족)의 恒久如一(항구여일)한 自由發展(자유 발전)을 爲(위)하여 此(차)를 主張(주장)함이며, ㉡人類的(인류적) 良心(양심)의 發露(발로)에 基因(기인)한 世界改造(세계 개조)의 大機運(대기운)에 順應并進(순응 병진)하기 爲(위)하여 此(차)를 提起(제기)함이니, 是(시) | 天(천)의 明命(명명)이며, 時代(시대)의 大勢(대세) | 며, 全人類(전 인류) 共存同生權(공존 동생권)의 正當(정당)한 發動(발동)이라, 天下何物(천하 하물)이던지 此(차)를 沮止抑制(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나) 學者(학자)는 講壇(강단)에서, 政治家(정치가)는 實際(실제)에서, 我(아) 祖宗世業(조종 세업)을 植民地視(식민지시)하고, 我(아) 文化民族(문화 민족)을 土味人遇(토매인우)하여, 한갓 征服者(정복자)의 快(쾌)를 貪(탐)할 뿐이오, ㉢我(아)의 久遠(구원)한 社會基礎(사회 기초)와 卓犖(탁락)한 民族心理(민족 심리)를 無視(무시)한다 하여 日本(일본)의 少義(소의)함을 責(책)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자기)를 策勵(책려)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他(타)의 怨尤(원우)를 暇(가)치 못하노라. ㉣現在(현재)를 綢繆(주무)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宿昔(숙석)의 懲辦(징변)을 暇(가)치 못하노라.

(다) 當初(당초)에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로서 出(출)치 안이한 兩國併合(양국 병합)의 結果(결과)가, 畢竟(필경) 姑息的(고식적) 威壓(위압)과 差別의(차별적) 不平(불평)과 統計數字上(통계 숫자상) 虛飾(허식)의 下(하)에서 利害相反(이해 상반)한 兩(양) 民族間(민족 간)에 永遠(영원)히 和同(화동)할 수 업는 怨溝(원구)를 去益深造(거익 심조)하는 今來實績(금래 실적)을 觀(관)하라. 勇明果敢(용명 과감)으로써 ㉤舊誤(구오)를 廓正(확정)하고, 真正(진정)한 理解(이해)와 同情(동정)에 基本(기본)한 友好的(우호적) 新局面(신국면)을 打開(타개)함이 ㉥彼此間(피차 간) 遠禍召福(원화 소복)하는 捷徑(첩경)임을 明知(명지)할 것 안인가.

(라)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朝鮮獨立(조선 독립)은 朝鮮人(조선인)으로 하여금 正當(정당)한 生榮(생영)을 遂(수)케 하는 同時(동시)에, 日本(일본)으로 하여금 ㉦邪路(사로)로서 出(출)하여 ㉧東洋(동양) 支持者(지지자)인 重責(중책)을 全(전)케 하는 것이며, 支那(지나)로 하여금 夢寐(몽매)에도 免(면)하지 못하는 不安(불안), 恐怖(공포)로서 脫出(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동양 평화)로 重要(중요)한 一部(일부)를 삼는 世界平和(세계 평화), 人類幸福(인류 행복)에 必要(필요)한 階段(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엇지 區區(구구)한 感情上(감정상)의 問題(문제) | 리오.

(마) 新春(신춘)이 世界(세계)에 來(내)하여 萬物(만물)의 回蘇(회소)를 催促(최촉)하는도다. 凍氷寒雪(동빙 한설)에 呼吸(호흡)을 閉蟄(폐집)한 것이 彼一時(피 일시)의 勢(세) | 라 하면, 和風暖陽(화풍 난양)에 ㉨氣脈(기맥)을 振舒(진서)함은 此一時(차 일시)의 勢(세) | 니, ㉩天地(천지)의 復運(복운)에 際(제)하고 世界(세계)의 變潮(변조)를 乘(승)한 吾人(오인)은 아모 躊躇(주저)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기탄)할 것 업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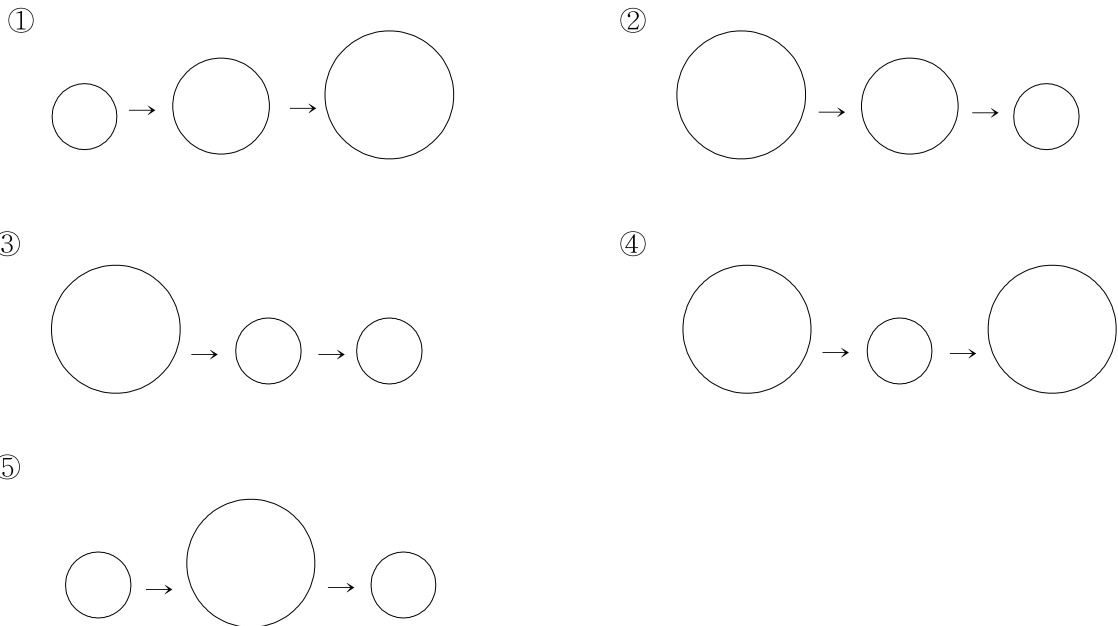
28.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8점]

- ① 중국은 일본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있다.
- ② 조선의 독립은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 ③ 우리는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과거의 잘못을 꾸짖지 않을 것이다.
- ④ 조선의 학자는 조선의 강단에서 문화 민족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 ⑤ 조선의 독립으로 일본은 동양을 떠받치는 중요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29.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주혁 : 오늘날의 글과 맞춤법 상에 차이가 있어서 읽기가 어려웠어.
- ② 창동 : 실용어(實用語)로만 쓰여 있어서 정서적 색채는 찾아볼 수가 없네.
- ③ 상면 : 국한문혼용체(國漢文混用體)의 글이라서 한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수형 : 이 글 속의 정신을 본받아 일본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편지를 써서 일본 대사관에 보내야지.
- ⑤ 영덕 : 거사 당일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낭독해야 이 글이 갖고 있는 기개를 느낄 수 있을 거야.

30. (라)의 주된 논지 전개 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옳은 것은?



31. ㉠~㉣ 중, 의미하는 바가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2. 다음은 어떤 책의 광고문이다. ㉠~㉣ 중, 이 광고문의 내용과 상통하는 것은?

**등잔 밑이 밝다?**

가장 가까이 있으나 우리가 가장 모르는 나라.

이제 어둡기만 했던 서로의 등잔 밑을 밝혀자.

다가오는 2002 한일(韓日) 월드컵의 성공 예감 !

일본 이해의 길잡이서 마침내 출간 !

- ① ㉠      ② ㉡      ③ ㉢      ④ ㉣      ⑤ ㉤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악기는 소리의 본질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만든 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그리고 우리 악기는 본질음의 색깔이 존속되는 정도의 공명만 사용한다. 말하자면 공명을 극대화하여 크고 멀리 가는 소리를 만든다든지 각 악기의 음이 거의 같은 성질의 음이 되도록 발달시킨 서양 악기들과는 달리 공명을 최소한으로 하고 오히려 악기를 만든 재료의 소리가 분명히 울리도록 발달했다는 것이다.

(나) 우리 음악에서는 음과 음이 연결될 때, 피아노 소리처럼 같은 높이의 음만으로 연결되지 않는 다. 음 자체가 생명력의 분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연결될 때에는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기도 한다. 음의 흐름은 계속 변화하면서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강유(剛柔)가 생길 수도 있고 농담(濃淡)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음과 음의 연결에 있어서는 시김새\* 사투리에 따라 나타나는 소리 현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악기를 전공하는 분들은 자기 악기의 독특한 시김새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시김새만 통달하면 간단한 악보를 놓고도 그 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다) 우리 음악은 선율 자체가 생명이다. 선율 하나로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색깔도 다양해야 하고 ㉠극적 표현력도 있어야 한다. 물론 장단과 결합하여 음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선율 자체의 인상은 가장 강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음악 선율의 구절법은 서양 음악의 그것과 좀 다른 것 같다. 우리 음악은 처음은 불쑥 질러내듯이 강하게 내고 끝 음은 아주 희미하게 여민다.

(라) 서양 음악의 박자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음악의 장단이다. 24박짜리 느린 진양장단, 16박 혹은 10박짜리 가곡장단, 또 12박 단위의 중모리나 중중모리 등 우리 나라의 장단에는 빠르기과 리듬의 형태를 함께 나타내는 많은 종류가 있다. 이러한 장단들은 선율하고도 관계가 있고 가사하고도 관계가 있다. 더 거창하게 말하면 우리 삶의 방식인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다. 특히 장단을 통한 생명력의 흐름은 서양의 박자에서와는 다르다. 흔히 말하는 민속악 장단의 치고[起], 달고[景], 맺고[結], 풀고[解]와 관계 있는 흐름이다. 우리 음악은 불쑥 강박으로 시작하면서도 이내 뜸을 들이듯이 차차 긴장시켜서 4분의 3부분쯤에 가서 ‘딱’ 하고 맺어 주고 그 다음 짧게 푼다.

(마) 우리의 가곡 한바탕은 10여 곡에 2시간 정도는 불러야 하고 산조 한바탕도 40분 이상 걸려야 한다. 판소리 공연은 보통 3시간~7시간쯤 걸리고 굿판을 벌이면 하루 종일 불러야 한다. 그런데 이런 형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반복 형식이 묘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농요(農謠) 한 꼭지만 보더라도 한 곡조를 가지고 온종일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큰 형식의 전체적인 짜임새는 느린 장단에서부터 차츰 차츰 빠른 장단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아주 빠르게 몰아서 맺어놓고 그 다음 짧게 풀고 마친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의 감정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 형식이어서 흥미롭다.

\* 시김새 :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장식음.

### 33.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 음악은 우리의 문화와 감정을 반영한다.
- ② 우리 음악의 장단은 서양 음악의 박자에 해당된다.
- ③ 우리 음악에서는 선율이 주는 인상이 가장 강렬하다.
- ④ 우리 음악에서 처음 음은 강하게 소리를 내고 끝 음은 희미하게 여민다.
- ⑤ 우리 음악에서는 음과 음을 연결시킬 때 같은 높이의 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34. <보기>의 서양 음악의 특징에 대비되는 우리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 문단은? [2.2점]

— <보 기> —

서양 음악은 두 마디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동기’를 기본 단위로 하며 이것을 발전시켜 곡이 완성된다. 이 ‘동기 발전식’ 음악의 원리는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이러한 음악은 일정한 틀을 가지며 얼마만큼의 벽돌을 쌓으면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것처럼 규모에도 제약을 받는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35. 윗글을 바탕으로 ‘우리 음악의 현대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쓰려고 한다. 각 문단과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 ① (가) : 옛날의 명창들은 오물을 마신다거나 폭포 밑에서 수련하여 목청을 단련시키는 훈련을 했지만 요즘 수련생들은 그와 같은 노력을 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 ② (나) : 근래의 국악 작품들 중에는 악기의 특성을 적절하게 살리는 시김새를 무시한 채 곡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국악을 위한 작곡인가 의심하게 된다.
- ③ (다) : 요즘의 신국악 중에는 양악식의 구절법을 쓰는 작품이 많고 특히 강한 박자로 마치는 종지(終止)를 즐겨 쓰고 있어서 국악다운 맛이 없다.
- ④ (라) : 근래에 국악에서 우리의 장단을 배제하고 4분의 4박자나 8분의 6박자로 작곡하는 것이 자주 발견되는데, 그러한 서양식 박자로는 우리 음악의 멋을 실어 낼 수가 없다.
- ⑤ (마) : 요즘 국악은 짧게 짧게 변화를 주려고 하고 대비의 효과를 노리는 데에만 치중하지 전통 음악처럼 거창한 형식을 적절 만들어 나가지 못한다.

36. ㉠을 (라)에 적용시킨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8점]

- ① 판소리는 대부분 짜여진 가사와 곡조 중심으로 공연을 해 나가지만 현장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상당 부분 다르게 연창할 수 있다.
- ② 판소리는 사설 내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성악이다. 바람 소리는 ‘우루루루’ 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물가에 빠질 때에는 ‘물가에 풍’ 하면서 목소리로 실감나게 표현해야 한다.
- ③ 판소리에서 가사의 발음은 음가 하나하나가 완전히 살아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가사 중에 ‘가슴’은 ‘가삼’으로 발음하고 ‘-에’나 ‘-의’는 ‘-으’나 ‘-어’로 발음하는 것이 보통이다.
- ④ 동편제 판소리는 기교보다는 소리 자체를 통성으로 깨끗하고 튼실하게 내며 소리의 끝이나 아니리의 끝을 여운 없이 탁 그치며 맺는다. 한편 서편제는 기교를 중시하고 소리도 애절하며 소리의 꼬리도 길다.
- ⑤ <춘향가>에서, 이도령이 광한루에 올라 먼 경치를 바라보는 대목은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어울리고, 마지막 암행어사 출도 장면은 급박한 상황에서 허둥대는 서리나 역졸들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빠르게 몰아쳐야 어울린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봄이 오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부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속으로)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안죽 어리다구 하니까…….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싸리문 밖에 있는 돼지 우리에서 죽을 퍼 주고 있었다. 서울엘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대구 웃침이 ㉡(얼른 보면 지붕 위에 앉은 제비 꼬랑지 같다.) 양쪽으로 뽕죽이 뻗치고 그걸 애햄, 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허다 말구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애햄을 한 번 후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찰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떼다 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찰에.”

하고 첫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팬스레 꼴을 널라구 든다. 뱀두 뱀이라야 좋냐구,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구 일상 말조심을 받아 오면서 난 그것두 자꾸 잊는다. 당장두,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꼭 밟고 결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펍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 둔 새끼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씨! 얼른 성렐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구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루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샷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레구 뭐구, 기집애 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쭉룩해서 입맛만 짹짹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두 그래!”

“그래 거진 사 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 킨 은제 자라지유? ㉢다 그만두구 사경 내슈…….”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 보구 떼냐?”

“빙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엘 낫지유?”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 킷배기 하나가 작다.)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꺾꺾 웃더니 ㉤(그러나 암만해두 돌 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굴리려구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톡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두 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어개로 그 궁둥이를 콕 때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쭐쪼고 싸리문계로 쓰러질 듯 하다 몸을 바루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톡 쟁그러웠다.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루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하면 장인님이 뭐라구 킷속말로 수군수군하고 간 뉘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구 아래와 같이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몽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 마지기 얻어 부치니까 그래 꺾었다구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않는다.)

“자네 말이 하기야 옳지, 암 나이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허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대든가 집으로 달아나든가 하면 손해죄루 그것두 징역을 가져든! ㉦(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왜 요전에 삼포 말서 산에 불 좀 놓았대구 징역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두 징역을 가는 이 땀에 남의 농사를 버려 주니 죄가 얼마나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 (사경을 받으려 정장이겠다 했다.) 간대지만 그러면 팬스리 쥔 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두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스물하나가 왜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루 말하면 이제 겨우 열여섯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갈에는 열 일을 제치고라도 성례를 시켜 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모 붓든 거나 마저 붓게. 군소리 말구 어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꺾소리 없이 왔다.

<중 략>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 놓으며 제 말로 지껄이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하고 엇그제 산에서와 같이 되우 종알거린다. 땀은 내가 더 단단히 땀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헌담!”

하니까,

“침을 잡아채지 그냥 뒤,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썰죽하니 뒤들어 가지 않느냐.

- 김유정, <봄·봄>

37. ㉠~㉥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해학적 효과를 높여 준다.
- ② ㉡ :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
- ③ ㉢ :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 ④ ㉤ : 주인공의 성격적 특성을 제시해 준다.
- ⑤ ㉥ : 주인공의 심리적 반응을 보여 준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인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 ② 장인에 대한 분노가 잘 나타나 있다.
- ③ 사물에 대한 주인공의 관찰력이 잘 나타나 있다.
- ④ 주인공과 점순이의 성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 데 대한 실망감이 잘 나타나 있다.

39. ㉠에 나타난 ‘나’의 솔직한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경’을 받아 가지고 미련없이 떠나 버리고 싶다.
- ② ‘사경’을 받아냄으로써 몰염치한 장인에게 복수하고 싶다.
- ③ 업포로 해 본 소리일 뿐, 점순이에게 빨리 장가들고 싶다.
- ④ ‘사경’을 받아 가지고, 점순이와 함께 멀리 달아나고 싶다.
- ⑤ 앞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

40. 윗글의 ‘성례’를 중심으로 역할극을 할 때, 인물들 사이의 대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8점]

- ① ‘나’ :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 보소!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यो? 답답해 죽겠네.”
- ② 장인 : “누가 성례를 안 시켜 준다고 했어? 때가 올 때까지 잠자코 기다릴 것이지. 창피스럽게 동네 방네 외치고 다녀?”
- ③ 구장 : “하긴 그렇기도 하지. 성례를 시켜 준다고 했으면 시켜야지. 그런데 말이지…….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서 먼저 일이나 묵묵히 해야지.”
- ④ 몽태 : “사람들이 저렇게 표리부동하기는……. 내 참, 저런 거짓말쟁이들이 다 있나. 야, 바보 같은 놈아! 자꾸 졸라대지 않으면 너는 장가도 못 들고 일만 죽도록 하게 될 테니, 알아서 해!”
- ⑤ 점순 : “야, 어디다 대고 외치고 다녀? 나도 다 맘먹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잠자코 있으란 말이야.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니면 너만 바보가 돼! 알았어? 내가 되려 답답해 죽겠네.”